

SK계열사,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성장 위해 주춧돌 놓는다

소셜밸류커넥트 2022

SKT, 21개사 참가 'ESG 코리아' 국내 ESG 스타트업 지원 큰 성과
SK스토아, 착한 소비 참여 기회 장애인 일자리창출기업 특별방송
SK이노, 친환경 기업 지원 '에그' 스타트업 그린 생태계 조성 전도

'소셜밸류커넥트2022(이하 SOVAC 2022)'가 2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성장을 위한 연결(Connect for Growth)'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태원 SK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9년 5월에 설립된 국내 민간 사회적 가치 플랫폼인 SOVAC은 SK계열사들을 필두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SOVAC2022에도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스토아 ▲행복나래 등 SK계열사들이 대거 참여해 ESG 활동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업계는 3년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 만큼 사회적기업 생태계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SK스토아 CEO 직속 SV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ESG 추진 담당이 에그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램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SOVAC2022 현장에서 각계 전문가 및 임팩트 투자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소통하고 있는 SK계열사 부스를 찾아가봤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SK텔레콤이었다.

◆SK텔레콤, ESG코리아 소개...성과로 이어져

SK텔레콤 부스에서는 'ESG 코리아'를 소개했다. ESG 코리아는 글로벌 기업, 국내 사회적기업가 교육기관과 투자사 등 21개사가 ESG 코리아 얼라이언스를 결성해 국내 ESG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ESG 코리아의

얼라이언스에는 ▲SKT ▲마이크로소프트 ▲SAP ▲소풍벤처 등 10개사. 올해 참가 기업은 21개사였다. 이같은 관심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이기복 SK텔레콤 ESG얼라이언스 부장은 "ESG 코리아는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좋은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성공적인 운영에는 얼라이언스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투자사연구기관 등의 멘토링과 경영인프라 등 적재적소에 제공한게 주요했다"고 말했다.

◆SK스토아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업에 초점

SK스토아는 'SOVAC 2022' 행사현

장에서 사회적 기업의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했다.

SK스토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씨튼베이커리' 쿠키·호두파이·시리얼 세트와 '히즈빈스'의 커피를 판매한다. SOVAC 행사 취지에 맞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업'인 시튼베이커리와 히즈빈스 두 기업과 함께 이번 특별 방송을 마련했다.

회사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과 손잡고 두 기업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른바 '착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해당 기업에게는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SK이노베이션 친환경 제품 전도사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분야의 스타트업들에게 집중했다. '에그'를 통해 스타트업들의 그린 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했다. 에그는 '에스케이 이노베이션과 '그'린벤처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뜻으로 올해 2회째 진행중이다.

올해 에그2기는 저탄소·친환경 분야에서 사업성, 혁신성, 사회적 임팩트 창출 가능성 및 SK이노베이션 계열과의 협업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특히, SOVAC2022이노베이션 부스에는 SK관계자가 아닌 앞서 스타트업들이 적극 나서서 에그를 소개하고 SK이노베이션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물을 소개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현장에서 만난 박연주 ESG추진담당 PM은 "타 부스와 다르게 SK이노에서 지원받은 스타트업들의 대표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각 사의 제품들과 에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는 각사들이 지원과 협력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기후변화로 인한 통신피해 사전 예방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과 2050년까지 이상기후 확률 예측

SK텔레콤이 기후변화로 인한 통신인프라 피해 위험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과 함께 미래의 기후변화가 통신 인프라에 끼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SKT는 이번 리스크 평가가 통상적인 자연재해의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2050년까지 이상기후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 통신 인프라의 피해 위험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전국에 걸쳐 설치된 유무선 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통신 시설 및 장비 손실

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컨대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해 침수가 예상되는 통신 시설은 사전에 점검해 전력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으며,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기지국은 이동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T는 현재의 대응체계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이상 기후와 같은 미래 극한 기후의 강도와 빈도를 반영한 사전 예측 대응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리스크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리스크 평가는 전국에 위치한 기지국, 중계기를 포함한 모든 통신 장비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산불, 산사태, 폭염, 폭설, 폭우와 같은 5가지 이상 기후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2021년부터 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분석했다.

평가 결과 폭설을 제외한 산불, 산사태, 폭염, 폭우 등 4가지의 이상기후 발생 확률은 205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의 경우, 한가지 이상의 이상기후 발생 확률이 높아 통신장비 피해 위험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예컨대 일부 산간 지방은 산불 뿐 아니라 폭우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어 통신장비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지도 상에 이상 기후 발생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SKT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지도'를 구축한 뒤, 통신장비에 대한 기후 영향도를 지속적 분석 및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echo@



구자은 LS그룹 회장(오른쪽)이 우수 프로젝트 시상하고 있다.

/LS그룹

LS그룹, 신사업·기술·혁신성과 전사 공유

'LS 퓨처 데이' 임직원 200명 참석 20개 프로젝트 선정해 발표·시상

LS그룹이 한데 모여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LS그룹은 19일 안양 LS타워에서 'LS 퓨처 데이'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LS퓨처데이는 구자은 회장이 '양손잡이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로 기존 'LS T 페어'를 미래 사업 분야로 확장한 행사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CEO와 CTO, CDO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계열사별 우수 사례 발표 및 시상식 등을 진행했다.

LS그룹은 올해에는 ▲New Business(신사업) ▲Technology(기술) ▲Innovation(혁신) 세가지 분야에서 각사의 프로젝트 성과를 20개 선정해 전사 공유했다. 우수 임직원들에게는 구 회장과 함께 최신 기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2023)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과제는 'New Business'에서 LS전선의 폐전선 재활용, LS일렉트릭의 공동주택 EV충전 등 6개의 프로젝트,

'Technology'에서는 LS전선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케이블, LS일렉트릭의 미주향 저압 배전반 등 9개 회사의 과제, 'Innovation'에서는 LS일렉트릭의 스마트 팩토리, LS-Nikko동제련의 톤당산소 자동제어 등 5개 회사의 과제가 선정됐다.

과제 발표와 시상식 후에는 신사업, 기술, 혁신 분야 세계적 우수 기업으로 꼽히는 테슬라의 사례에 대해 포스코경영연구원 박형근 수석 등 3명의 연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LS그룹은 이번에 좋은 반응을 얻은 LS퓨처 데이를 정례화해 매년 1회 9월경 개최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구성원이 퓨처리스트가 되어 2030년 지금보다 두배 성장한 LS를 함께 만들어보자"며 "로켓처럼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발사대 역할을 하겠으니, 마음껏 도전하라"고 말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요소로 '수평적인 소통', '애자일(Agile)한 조직', '실패에 대한 용인',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

KT, 크기 최소화 모듈형 광모뎀 공개... 소규모 공동주택 특화

유럽 광통신 콘퍼런스 2022서 유무선 광 액세스 솔루션 공개

KT가 유럽에서 유선전화 서비스 통합 광모뎀 등 비용이 효율화된 광 액세스 솔루션을 공개한다. KT는 솔루션 공개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솔루션 개발 및 KT 광 인프라 기반 실증 지원으로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KT가 스위스 바젤에서 21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유럽 광통신 콘퍼런스 2022'에서 차별화된 유무선 광 액세스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유럽 광통신 콘퍼런스 2022'는 전세계 300개 이상의 광통신 부품 및 장비업체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유럽 최대의 광통신 전시회다.

KT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지능정보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한 광부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KT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특화된 모듈형 광모뎀을 선보이고,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유선전화망 서비스 통합 광모뎀(엔아이투스)

▲5G 액세스 네트워크용 25G 양방향 LAN-WDM 광트랜시버(라이트론) ▲5G X-haul 라우터(유비쿼스) 등 장비도 전시한다.

KT가 개발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특화된 모듈형 광모뎀은 공동주택의 단차함 등에 설치 가능하도록 크기를 최소화해 모듈 교체만으로 1~10G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손쉽게 개통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지난해 상용화한 데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해당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